

자동차 100만 기지 국비 못주나 안주나

올 예산 집행 '0'... 내년도 불투명 기재부, 국비 부담률 축소 요구 "검찰 시청 수사 영향" 해석도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반영했던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의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연말이 다 되도록 올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관련 국비 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 예산은 광주시가 시비 18억원을 보태 자동차 산업단지 설계비와 기반 구축비용을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로 확정됐고 정부 예산까지 통과된 사업인데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광주시가 요구한 관련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미 발동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광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비 403억원이다.

여기에 시비 215억원을 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만큼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상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기재부가 국·시비 부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 미반영은 물론 올해 예산 집행도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결정된 국비 반영비율을 낮추자고 기재부가 요구하고 있다"며 "예타까지 통과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시 주변에서는 현안사업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장현 시장의 인척 비리로 촉발된 검찰 수사에 따라 부

담을 느낀 정부가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최근 "대구나 제주 등 전기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경쟁 지체체가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부 예산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올해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놓고 정부와 시가 겪었던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도 있다.

광주시는 국비 미집행과 내년 예산안 미반영이 사업추진 전체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정치권과 연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어 내년 예산안 반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공기업들 빛더미 속 성과급 잔치

15곳 3년간 215억원 쟁겨

광주지역 주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빛더미 속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을 받은 출연기관 대부분도 경영평가 성적은 중간 수준에 그쳤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건벤센센터, 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4곳과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등 출연기관 11곳 등 15곳이 최근 3년간(2013~2015년) 평균 성과급을 215억원에 달했다.

성과급 총액도 꾸준히 늘어 2013년 61억9000만원에서 2014년 73억4000만원, 지난해 79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시공사로 889만원에 쟁겼다. 임원은 1290만원에 달했다. 도시철도공사 624만원, 환경

공단이 553만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526만원을 받았다.

성과급 잔치를 한 이들 공기업 중 3년간 가등급을 받은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나등급(도시철도공사, 김대건벤센센터), 다등급(환경공단)에 그쳤다.

특히 환경공단은 지난해 나등급에서 올해는 다등급으로 한 단계 밀리기도 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66억원에 달했다.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도 올해 기준으로 여성재단과 신용보증재단이 A등급으로 그나마 체면을 세웠을 뿐 교류협력센터, 그린카진흥원 등 나머지는 보통인 B등급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성과급은 행정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린카진흥원이 746만원을 받았으며 도시철도공사 624만원, 환경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0m 길이 대인시장 아케이드 10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서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인시장 2차 아케이드 준공식'이 열렸다. 김성환 동구청장과 상인 등 200여명이 준공식 이후 총 연장 100m, 높이 10m 규모의 아케이드 사업 구간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시·전남도, 예산 확보 분주... 14·18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정감사 뒤 '2017년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 오전 7시 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 지역구 의원 8명과 함께 오찬을 겸한 국비확보 간담회를 연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오전 7시 국회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이 지역 출신 의

원 등을 초청해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시·도는 지난 7월에도 지역구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도시락 회동'을 하며 예산정책 간담회를 했다.

당시 간담회가 현안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수립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행사들은 국회 심의과정

에서 예산 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자동차 100만대 사업, 문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확보에 공들이는 광주시와 농림해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중심인 전남도 주력 사업 등의 차이를 고려, 이번 간담회는 시·도가 별도로 개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의원 8명이 여러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했고 공통 현안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초청 대상을 광주 의원들로만 한정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순천시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광주·전남 출신 27명 의원을 초청했지만, 참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수서발 고속철 전라선 운행 촉구

전남도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 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개통 예정인 SRT의 전라선 운행과 용산발 고속철(KTX)의 증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용산발은 하루 편도 기준 경부선 74회, 호남선 24회, 전라선 10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수서발은 경부선 34회, 호남선 18회를 운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RT 개통 이후 고속철 운행간격은 경부선 19분에서 13분, 호남

선 60분에서 34분으로 줄지만 SRT 운행노선에서 제외된 전라선은 그대로 144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익산, 전주, 순천, 여수 등을 연결하는 전라선은 국내 철도 3대 축의 하나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성장 잠재력도 커 국토균형 발전과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문철 의원은 "100만명에 달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과 광양만권 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전남도, 주암호 주변 연꽃단지 조성

수질 개선·관광객 유치

광주·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호 주변에 연꽃단지가 조성된다. 연꽃습지, 생태동방, 기타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0일 "보성군과 함께 주암호 주변 보성군 북내면 일원에 60억원을 들여 수질정화 식물인 연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억원을 투입, 실시계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암호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축사와 농경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점오염 물질 관리가 중요시되는 지역인 점을 고려

해 추진하게 됐다. 오염 저감시설인 3만 4500㎡ 면적의 연꽃 습지가 조성되면 주암호의 조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꽃 경관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연꽃 재배와 연근 수확으로 주민 소득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생태 체험장 및 선진지 견학지로도 쓰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2003~2018년 모두 220억원을 들여 주암호 주변 농경지 1017만8000㎡의 36%가량인 362만 9000㎡를 생태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 223-5506



구도청1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